

환경재단이 태양광으로 밝힌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친구야, 햇빛 학교

가자!

ISBN 978-89-89831-95-2



제목 | 어린이 환경 창의 동화 1 - 친구야, 햇빛학교 가자!
부제 | 환경재단이 태양광으로 밝힌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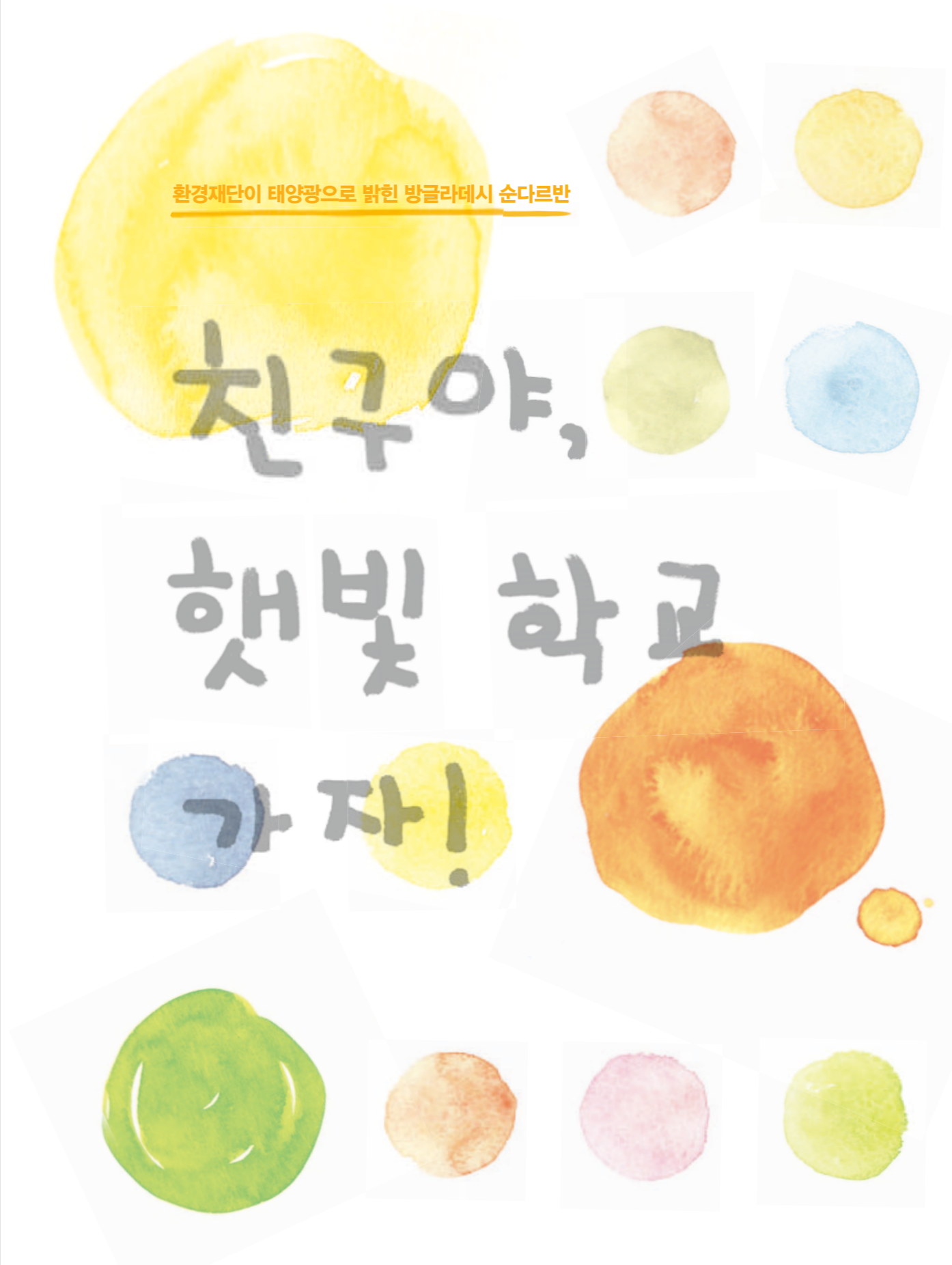
2015년 09월 21일 발행
2015년 09월 21일 1쇄

지은이 | 환경재단
편집+디자인 | 라이브러리
경영지원 | (재)환경재단
마케팅 | (주)나남출판

출력+인쇄+제본 | 갑우문화사
펴낸이 | 이미경
펴낸곳 | 환경재단 도요새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34-7 동양빌딩 A동 2층 환경재단
등록번호 | 제2-4522호 [2006.12.11]

공급 | (주)나남출판
주소 | 413-75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화동길 193
전화 | 031-955-4601
전자우편 | post@nanam.net

© 환경재단
생명을 살리는 책, 도요새는 환경재단[www.greenfund.org]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06 환경재단 대표, 작은 나무 최열 아저씨를 만나보자!

10 내 이름은 태양, 빨간색처럼 뜨겁고 용기 있는 아이.

14 주황색처럼 늘 알맞게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18 지구로의 모험 여행! 집집마다 노란 전기 불빛이 있더군.

24 초록색으로 가득한 방글라데시에 가봤어.

30 밤이 되면 빛이 없어서 우울해지는 타마리카네 집.

36 짙은 남색 감광 종이에, 햇빛 편지를 쓰자!

42 밤에도 햇빛이 되어줄게, 희망이 되어줄게.

46 친구야, 오늘도 햇빛학교 가자!

48 나, 태양의 이야기를 읽는 재미있는 방법.

이 책은 표지가 2개, 목차도 2개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환경 창의 동화는 모두 7개의 이야기로
햇빛의 스펙트럼과 구성을 맞추었습니다.



환경재단 대표 최열 아저씨의 솔라스쿨 이야기 : 친구들, 안녕?

늘 환경이야기로 찾아오는 작은 나무 최열입니다. 우리 이웃인

아시아의 모든 또래 친구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와 집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기를 바라는 35년째 환경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솔라스쿨'이라는, 조금 특별한 학교와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저씨와, 아저씨가 일하는

환경재단이라는 단체에서는 2012년부터 전기가 부족한 나라들,

에너지 빈곤국을 지원해왔습니다.



햇빛을 전기로 바꿔서 사용하는 태양광 전등의 개수가 1만 개나
됩니다. 네팔,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 등 8개 나라의 친구들과 고루고루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태양광 전등 충전이 가능한 솔라 스테이션이 있는
햇빛학교, 솔라스쿨! 오늘 만나게 될 친구가 다니는 방글라데시
케주리아비나파니 국립 초등학교 Khejuria Binapani Government Primary School
가 바로 그 첫 번째 솔라스쿨입니다. 아시아의 더 많은 학교가
솔라스쿨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생각으로 함께해 주기를.



빨간색 이야기 나는 태양이다. 내가 직접 지은 이름은 아니다.

내 주위를 돌고 있는 여덟 개의 별 가운데 유달리 푸른 '지구'

라는 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른다. 나를 사람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해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걸 보면 지구별 사람들은

나를 무척 좋아하나 보다. 사람들이 무척 소중히 여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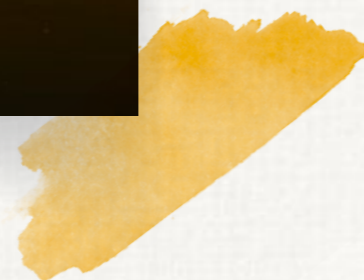
없으면 살 수 없다는 '희망'이란 말을 대신해 내 이름이 쓰기도

한다니, 나의 인기는 대단하지 않은가. 사실, 희망이란 게 어떤

건지 난 잘 모르지만, 나처럼 밝고 뜨겁고 그런 것이겠지?



ㅎㅎ. 어쨌든 지구 아이들은 나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하는 모양인데, 노란색 혹은 빨간색을 써서 우선 동그라미를 그리고 주변에 사자 갈기 같은 것을 잊지 않더라. 난, 이게 내 얼굴인지 알아보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 몇만 년 정도? 거울을 본 적은 없지만, 사실 나는 특별한 모양도 없는 그냥 시뻘건 불덩어리 같은 것인데, 이게 아이들 눈에는 빨강고 반짝반짝하게 보인다니! 어쨌든, 난 이 색깔과 모양이 제법 마음에 든다. 그래서 때때로 빨간 불 망토를 휘둘러 지구를 달군다.



주황색 이야기 지구는 재밌는 녀석이다. 일 년마다 내 주위를
빙빙 돌면서 계절을 만든다. 그러면서 만날 스스로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까지 한다. 사람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지구에
맞춰 내 얼굴이 보이면 하루를 시작하고, 내 얼굴이 사라지면
잠자리에 들면서 꿈이라는 걸 꾀다고 해. 지구야말로 동그랗게
생겨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따라 나를 오래 만나기도, 또
짧게밖에 못 만나기도 하지. 더운 데서는 나 때문에 덥다고
난리, 추운 데서는 내가 부족하다고 투덜투덜.



나는 늘 주황색 얼굴빛을 가진, 적당히 밝고 알맞게 따뜻한
태양이고 싶다. 지금도 인기가 많아 고민이지만, 더, 더, 더!
지구가 내 주위를 빙빙 도는 것, 또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을 멈춘다면, 내가 주황색 착한 태양이 되어줄 텐데.
여기까지 생각하니 나는 이 지구라는 녀석이 무척 궁금해졌다.
내게서 고개를 돌리는 밤이 되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깜깜하고 추울 텐데. '해님 달님'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이
달이란 녀석이 내 인기를 가로챌다는 말인가.



노란색 이야기 나는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검은색 우주 뒤에 숨어서 지구의 뒤편, 밤이라는 데로 가보기로 한 거다. 태양은 엄청 큰 덩어리라 조금 빠져나와서 돌아다닌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지. 내가 한낮에도 감쪽같이 없어지는 일식을 봤다면, 내가 우주라는 검은 옷자락 뒤에 얼마나 잘 숨는지 알 거다. 어쨌든 이걸 가출이 아니라, 엄연한 모험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모험을 떠나니, 내가 마치 지구의 아이가 된 것처럼 두근거렸다. 내가 없는 데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궁금하다고.



그런데 헛. 이게 뭐지? 나, 태양이 닿지 않는 지구의 뒤편은
질은 우주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두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짝반짝 무수히 작은 별들이 빛났다. 노랗고 하얀 빛을 내는
작은 별들. 집집마다 작은 별들을 키우고 있는 건가? 아이들은
그 반짝거리는 별들 아래서 책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숙제를
하고 퇴근하시는 아빠를 반기고 있었다. 지구 사람들이 만들어
낸 그 별들을 한참 보고 있으니, 가족은 참 따뜻하고, 집은 참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말이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분명히 아이들이 사는 곳이고
집이 있는 동네인데 어디에나 있는 작은 별들이 드문 곳이
보였다.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아시아의 동쪽은 집집마다
내뿜는 빛이 마치 태양처럼 밝은데 서쪽, 남쪽은 어둡다. 내가
잘못 봤나? 숲이나 사막, 바다라서 그런 건가? 아니다, 내가 이
지구라는 녀석을 지켜본 게 얼마인데 땅덩어리 생긴 모양도
모를까. 이 반짝거리는 불빛, 따뜻해 보이는 노란색 점들이 왜
작은 지구에 고루고루 퍼져 있지 않은지 궁금해졌다.



초록색 이야기 나는 다시 낮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밤에도 환한
빛을 내뿜던 아시아의 한 도시, 서울의 한 아파트, 동민이 집을
들여다봤다. 빛을 내는 전등이 있고,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텔레비전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가
있고……. 이런, 내가 없어도 잘 살겠는걸! 그 이유는 바로 전기
라는 녀석 덕분이란다. 1879년, 포기를 모르는 에디슨이라는
과학자가 전기를 발명해서 전등을 켜 이후에 사람들은 밤에도
환하게, 따뜻하게, 편하게 살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요즘에는 나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등이 자연에도 사람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인기라고 하니, 전기가 알뜰지만은
않았다. 내 친구 정도로 삼아줄까? 나 태양은 워낙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돈도 받지 않고 지구를 비춰주니, 나를 닮은 이
전기라는 녀석은 지구 사람들 누구라도 맘껏 쓸 수 있겠지?
오히려 너무 밝아서 아홉 시, 열 시가 넘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고, 게임도 너무 많이 하고, 밤늦게까지 냉장고를 뒤적이는
동민이를 보면, 전기가 너무 풍족한 것도 문제다, 문제.



그런데 동민이네 집에서는 남아도는 전기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의 타마리카 집에는 왜 부족한 걸까. 나는 어젯밤 유독 캄캄했던, 타마리카의 동네 근처 케주리아 쿨나 지역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봤다. 근처에는 짙은 초록색 숲이 우거져 있었다. 여러 동물들과 나무가 살기엔 아주 좋은 낙원이다. 귀한 맹그로브 나무들과 벵골호랑이, 악어까지, 여러 동식물들의 멋진 집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타마의 일기장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파란색 이야기 타마 일기장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

집에도 작은 태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도 있었다. 나를 닮은

석유 등불이 있기는 한데, 연기가 심하고 뜨거운 데다가 나무로

만든 타마 집을 태워버릴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또 등유는 얼마나 비싼지. 책을 좋아하는 타마인데, 학교가

끝나면 책은 커녕 귀여운 동생 얼굴도 잘 안 보이는 모양이다.

타마 동생이 석유 등불 연기에 기침을 한다는 이야기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전기보다 못한 녀석, 등불이 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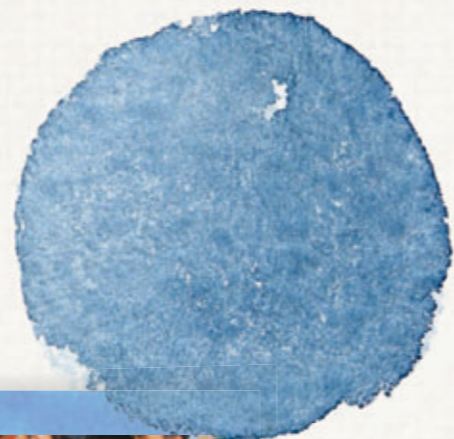
나는 불같이 화가 났다. 케주리아 쿨나 지역은 우기도 길고, 햇빛도 잘 들지 않기 때문이다. 비를 내리는 것도, 빛을 주는 것도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왜 나의 좋은 능력과 마음이 이곳에 잘 전해지지 않을까. 에디슨처럼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동민이 집에 남아도는 전기를 조금 나눠주거나 새로 전기를 만들어 타마네 집도 환하게 밝혀주지 않고 뭐 하냐 말이다. 타마네 동민이처럼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나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바라는데 아니라, 책 읽고 동생을 돌볼 수 있는 전등 하나만을 바라는데.



내가 이렇게 성격이 나쁜 태양인 지도 모르고, 타마는 또 내게 말을 걸어왔다. “해님. 제가 얼마나 우리 동네를 좋아하는지 알지요? 물과 땅,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는 멋진 맹그로브 나무로 가득한 숲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97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이 되었대요. 260여 종 멸종 동물들의 집이라니, 저도 얼른 공부해서 이 푸른 숲을 알리고 지키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밤에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진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텐데. 해님이 내 꿈이에요, 내 희망이에요.”



남색 이야기 그제야 나는 알게 됐다. 그래, 이런 걸 희망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내가 희망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가슴이 아팠다. 퍼뜩, 동민이가 생각났다. 동민이는 얼마 전 서울 광화문 광장의 에너지의 날 행사에 다녀왔다고 했다. 환경재단이라는 단체에서, 타마처럼 전기가 부족한 나라의 친구들에게 태양광 전등을 보내준다고. 2012년부터 보내 준 태양광 전등이 이제 자그마치 1만 개가 된다고 했다. 동민이도 그 친구들을 위한 햇빛 편지를 쓰고 왔다고 했다. 타마가 그 편지를 받았을까?



그리고 보니, 기억이 난다. 낮 동안 내가 내리쬐는 빛을 반짝이는 판에 받아 모아서 작은 분유통 같은 전등에 충전하던 학교와 교실들. 수업이 끝나면 그걸 신이 나서 가져가는 아이들. 내 빛을 모은 태양광 전등 아래 모인 가족들. 부족하지만 빛을 나눠 쓰고 아껴 쓰는 밤. 내가 강하게 내리쬐는 날이면, 선생님들은 이걸 잘 모아줬다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재미있는 영화도 보여 줬다. 난 원래 하던 대로,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고맙게도 '햇빛 영화관'이란 이름까지 붙여주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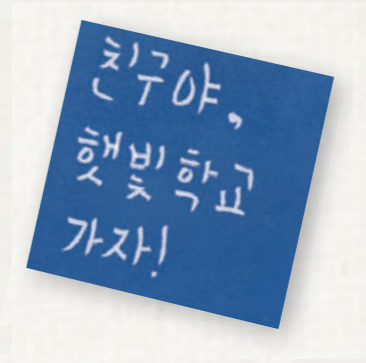
이제 알겠다. 그래서 타마가 나를 희망이라고 불렀구나. 타마가 다니는 비나파니 공립 초등학교에도 이 태양광 전등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겼기 때문이다.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고 교실 뒤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태양광 전등이 충전되고 있다. 타마는 등교할 때 이 전등을 챙겨오고, 하룻길에 애지중지 집으로 가져간다. 등불 연기 때문에 기침하던 동생은 잠을 잘 자고, 캄캄한 새벽에 고기잡이 나가는 아빠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난 집안의 보물이다.



보라색 이야기 물론 내가 제일 기분 좋은 건, 타마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타마는 열한 살, 아직 어리지만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다. 얼마 전, 맹그로브 숲 근처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전기는 들어오고
편리해지겠지만, 숲의 동물, 식물들에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좀 참자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한 속 깊은 아이란 말이다.
그런 아이에게 내가 희망이 되어 준다니. 나는 태양인 나보다 이
아이 웃음이 더 밝고 따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내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아직 밤에 어두운 아시아의 나라들, 에너지 빈곤국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 타마가 맹그로브 숲과
벵골호랑이의 소중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른이
될 때쯤이면, 태양광 전등이 1만 개가 아닌 100만 개쯤 될지도.
태양은 절대 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사람과 자연을
해치지 않는데다가 돈도 받지 않으니 마음껏 사용하시라.
왜 내가 이제야 알게 됐을까. 내가 희망이란 걸.



뎃붙이는 이야기: 전기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전기가 태양처럼
 환하게 들어오는 밤에도 책이나 숙제는커녕 텔레비전만 보던
 동민이. 웬일로 환경재단 에너지의 날 행사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지역 조사도 하고, 에너지 빈곤국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다길래 살짝 들여다봤다. 햇별을 쬐면
 글씨가 나타나는 감광지 체험. 그래서 내가 짹짹 빛을 내리쬐
 졌다. 거긴 이렇게 멋진 글이 나타났다. "타마야, 햇빛학교에
 다녀서 좋겠다! 친구야, 햇빛학교 가자!" 라고.

빨주노초파남보! 태양이 귀땀하는,

이 책을 색깔로 읽는 법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빨주노초파남보 태양의 일곱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나 태양의 기분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있지. 주황색은 따뜻한 마음을,

파란색은 조금 우울한 느낌을 말하는 것처럼.

정해진 것은 없지만, 태양의 색깔에는 많은 말과 뜻이

숨어있어. 친구들은 나의 색깔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각 색깔이 말하는 느낌을 말해줄래?

아마 친구들마다 색깔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기억이 다를걸?



한 붓 그리기로 속속!

생각은 많이, 그림은 단박에. 햇빛 스케치

이 이야기 속의 그림이 모두 한 붓 그리기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었지?

그림의 외곽선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그리면서, 하나의 선으로

완성하는 거야. 하나의 선으로 한 번에 그림의 외곽선을 그리려면

미리 그 그림의 모습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려야 해.

떠오르는 대로 그리지 않고 미리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긴다고 해.

네가 나처럼 햇빛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의 그림자를 떠올려봐.

하나의 선으로 외곽선을 그릴 수 있겠지?



감광 종이로 햇빛 그림 그리기,

집에서도 할 수 있어.

이미 감광지 그림을 수업시간에 해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거야. 집에서도 감광지를 사용해서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편지나 그림 카드를 만들 수 있어.

OHP 필름이나 투명 아크릴 판에 매직으로 글씨나 그림을 쓰고

그린 후, 감광지 위에 올려두고 햇빛을 쬐면 파랗게 변하지.

물에 넣었다가 햇빛에 말리면 글씨나 그림은 하얗게,

나머지 부분은 진한 파란색이 돼.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사진을 OHP 필름에 출력해서 해도

되고, 나뭇잎이나 학용품을 올려뒀봐도 재미있을 거야.

감광 용액이 손에 닿을 수 있으니, 손을 꼭 싹싹 씻어야 해!



〈친구야, 햇빛학교 가자!〉의

마지막 페이지.



태양이 전해주는 아주 특별한 여행기는 여기까지.

〈친구야, 햇빛학교 가자!〉는 여기서 끝나.


오른쪽 페이지는

반대편 표지를 통해 시작하는

〈어른들을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야.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으니,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함께 읽어 보는 게 좋겠어.




환경재단 지음

태양광 전등,

아시아 마을에 가다



어른을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



환경재단의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
<일만 개의 태양을 나누다> 프로젝트를 상세히 보고합니다.



본 보고서는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ISBN 978-89-89831-95-2



제목 | 어린이 환경 창의 동화 1 - 친구야, 햇빛학교 가자
부제 | 태양광 전등, 아시아 마을에 가다 [어른을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

2015년 09월 21일 발행
2015년 09월 21일 1쇄

지은이 | 환경재단
편집+디자인 | 라이브러리
경영지원 | (재)환경재단
마케팅 | (주)나남출판

출력+인쇄+제본 | 갑우문화사
펴낸이 | 이미경
펴낸곳 | 환경재단 도요새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34-7 동양빌딩 A동 2층 환경재단
등록번호 | 제2-4522호 [2006.12.11]

공급 | (주)나남출판
주소 | 413-75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화동길 193
전화 | 031-955-4601
전자우편 | post@nanam.net

© 환경재단
생명을 살리는 책, 도요새는 환경재단[www.greenfund.org]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태양광 전등, 아시아 마을에 가다

어른을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

환경재단의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
〈일만 개의 태양을 나누다〉 프로젝트를 상세히 보고합니다.

어른을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
목차



태양광 전등, 아시아 마을에 가다

06

반갑습니다.
환경재단 대표, 최열입니다

2012년부터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을 이끌어 온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 프로젝트를 간단히 보고합니다.

08

보고합니다.
환경재단의 솔라스쿨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시작과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까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14

함께합니다.
8개국, 35개 현지 단체, 1만 개의 태양광 전등의 결실

각 나라의 환경과 사정을 잘 아는 현지 단체들의 참여, 지혜, 도움이 중요한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22

지속합니다.
시작만큼, 맺음 만큼 중요한 계속되는 관심과 나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햇빛처럼 좋은 생각,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재단 대표, 최열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환경재단이 아시아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 <일만 개의 태양을 나누다>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일만 개의 태양을
모으기까지

환경재단은 아시아의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환경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습니다.

아시아 환경 리더들과 함께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공통의 환경문제를 탐색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방문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시아 생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시작한 <생명의 우물> 사업으로 230여 기의 우물을 지원한 데 이어 태양광 에너지 지원 사업인 <일만 개의 태양을 나누다 (생명의 빛)>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태양에너지를 저축하여 밤에도 밝은 빛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일만 개의 태양을 나누다>라는 사업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UN은 2000년에 발표했던 새천년개발목표를 올해 지속가능개발목표로 재편성하며, 현지의 환경과 주민의 역량강화를 중요하게 삼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재단의 환경을 고려한 국제협력사업의 목표 지점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가능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전문가와 여러 환경 전문가들이 지원할 지역을 탐구했습니다. 지원물품을 튼튼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보내고, 잘 쓰이고 있는지 듣고, 더욱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환경 리더들도 참여했습니다.

1만 개의 태양을 나눠 받은 아시아 곳곳의 어린이들이 이제 태양광 전등 아래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저녁시간을 보내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소식에 더욱 힘을 내어, 환경재단은 오늘도 아시아의 마을을 찾아갑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일만 개의 태양을 나누다

환경재단의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 프로젝트, <일만 개의 태양을 나누다> 캠페인은 가난한 이웃나라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행복을 위해 소형 태양광 패널과 LED 전등을 각 가정에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광 전등, 참 쉬운 에너지



대규모 발전소나 거대한 송전탑, 송배전 시설이 없이도 어느 가정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

환경재단은 2012년부터 전력 인프라가 열악한 아시아 구석구석에 희망의 빛, 일만 개의 태양광 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떠나가면 하루의 절반을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호흡기 질환과 연료비 걱정 없는 그린에너지 태양광 전등으로 해가 진 뒤에도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왜, 태양광 전등을 나누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도, 해가 뜨지 않는 나라도 없기에

우리나라의 전기 보급률은 100%. 해가 지는 밤이 온다고 해서 빛이 없어지는 생활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기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 수는 아시아 전체에만 총 7억5,000만 명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우리나라 인구 수의 1.7배인 8,500만 명이, 네팔에는 2,500만 명이 해가 지면 빛이 없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은 빛이 부족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 나라에 빛과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아시아의 희망과 생명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로 일만 개의 태양광 전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태양광 전등만이 줄 수 있는 혜택

태양광은 대규모 발전소나 거대한 송전탑, 송배전 시설 없이도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만한 태양광 패널과 LED 전등 하나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성이지만, 한 가족이 든든한 밤을 보내기에는 충분한 빛입니다. 햇빛으로 4시간 충전 후 10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흐린 날씨나 우기에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모듈 패널 수명 20년, LED 전등 수명 10년, 충전 배터리 수명 8년으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고, USB포트로 휴대전화, 전자 기기 충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전등을 나눈 후

어린이들이 깜깜한 밤에도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유를 태우는 램프를 사용하지 않아 호흡기 질환이 줄어들고, 전기료나 등유 값 부담 또한 줄었습니다. 깜깜한 산길을 걷지 않아도 되어 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걱정도 줄었습니다.

일차적인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환경재단은 아시아 환경 리더 및 협력 단체 대표들과 함께 아시아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동문제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 내용을 알리고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진행하며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나눔의 손길을 공유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 기간

2012년 1월-현재까지 (2015년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 1차년도 : 2012년 1월 ~ 2013년 5월
- 2차년도 : 2013년 6월 ~ 2014년 6월
- 3차년도 : 2014년 7월 ~ 2015년 10월

2012년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의 시작

2012년 4월, 아시아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 선포 - 지구촌학교(서울) 운영
 2012년 5월, 서울환경영화제 회원부스 운영
 2012년의 태양광 전등 홍보대사는 이효재 님이 맡아주셨습니다.

2013년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을 알리고, 나누고

2013년 5월, 서울환경영화제 트레일러 제작 상영 및 영화제 기간 중 어둠체험부스 운영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 지역순회 에너지영화 상영회 (서울, 울산, 부산, 대전, 춘천)
 2013년의 태양광 전등 홍보대사는 박중훈 님이 맡아주셨습니다.

2014년

2014년, 점차 늘어나는 태양광 전등

2014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교육 교보재 제작
 - 5월, 서울환경영화제 태양광 전등지원 사업 홍보 부스 운영
 - 6월, 국가별 환경분석서 발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베트남)
 - 8월, 에너지의 날 <일만 개의 태양을 나누다> 3차년도 사업 선포
 - 10월, <일만 개의 태양을 나누다> 거리 캠페인
 2014년의 태양광 전등 홍보대사는 지진희 님이 맡아주셨습니다.

2015년

2015년, 아시아 구석구석 내린 일만 개의 태양

2015년 5월 12일, 제4회 그린아시아포럼 '아시아의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전환' 개최
 - 5월, 서울환경영화제 에너지체험부스 운영
 - 6월 22일,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솔라스쿨 준공식
 - 6월 24일, 다카다일로그 - 방글라데시 친환경에너지 개발협력사업전문가 간담회
 - 7월, 국가별 환경분석서 발간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 8월 22일 에너지의 날,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 결과보고회
 2015년의 태양광 전등 홍보대사는 캐릭터 프랭키가 맡아주셨습니다.

환경단체와 각국의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친 태양광 전등 지원. 총 8개국, 35개 지역에 일만 개의 태양을 전달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오늘까지, 태양광 전등 지원은 국내, 국외의 다양한 사람들, 단체와 함께하며 꿈을 이룹니다.

네팔

국토의 대부분이 고산지역이기에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네팔. 2012년 산간지역인 루쿰 마을과 2015년 지진 피해지역 가티, 곰탕 지역에 태양광 전등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지역에 태양광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인도

총인구 12억7,000만 명 전기 미보급 인구가 아시아 최대로 4억1,000 만명 이상인 인도,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에 태양광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몽골

넓은 국토에 인구가 흩어져 전력 보급이 불편한 몽골.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인근 지역에 태양광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캄보디아

아시아에서 전기 보급률은 가장 낮고, 전기요금은 가장 비싼 나라. 캄보디아의 깜퐁 주와 따께오 주에 태양광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미얀마

전기 미보급률이 87%에 달하는 미얀마. 양곤 교외, 친주 지역에 태양광 전등을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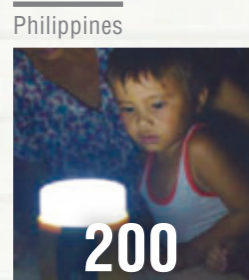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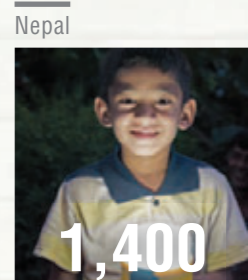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지역별 전기보급률 차이가 심한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외 5곳에 태양광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세계 1위 인구밀도국이나 전체인구의 43%만이 전력혜택을 받는 곳. 세계 최대 맹그로브 숲인 순다르반 지역에 솔라스쿨을 준공하고 에코빌리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팔, 필리핀, 인도,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총 8개국의 35개 지역에 총 일만 개의 전등을 나누는 동안, 현지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20개 기관과 함께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욱 생생한 현지의 환경 정보와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지 협력 단체 및 기관

태양광 전등이 가장 필요한 지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각 나라의 환경과 사정을 잘 아는 현지 단체들의 참여와 도움이 함께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태양광 전등을 바르게 전달하고, 태양광 전등 지원 후에도 꼼꼼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도왔습니다.

1

캄보디아의 'FRC'

FRC(Family Resource Center)는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어린이의 방과 후 교실과 영어교실, 가정방문을 통한 정서 교육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과는 2011년부터 어린이 교육지원, 생명의 우물, 태양광 전등 지원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방글라데시의 'BEDS' <http://www.bedsbd.org/>

BEDS(Bangladesh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ociety)는 2010년에 설립되어 방글라데시 남단 순다르반 지역에서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등의 환경이슈에 대응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과는 솔라스쿨 건립과 에코빌리지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3

몽골의 'Onggi-River Movement'

Onggi-River Movement는 몽골의 옹기강 유역 주민들이 2001년에 설립한 단체로, 사막화, 과도한 방목, 채굴 등을 줄이기 위해 1,600명의 회원들과 모니터링 단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옹기강 주변 채굴에 의한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하여 2006년에 옹기강 주변 37개의 채굴 중 35개의 운영을 멈추도록 하는 광물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4

필리핀의 'ECCI'

ECCI(Engimata Creative Circle, INC)는 2004년부터 재난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을 하며 전시와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술 워크숍과 친환경 숙박시설을 통해 문화 교환프로그램도 실행 중입니다. 2014년 태풍 하이옌 피해 지역에 태양광 전등을 지원하는 협력 단체로 참여했습니다.

5

미얀마의 'Daw Khin Kyi Foundation' <http://dawkhinkyifoundation.org/about-us/>

Daw Khin Kyi Foundation은 노벨상 수상자인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2012년에 자신의 어머니(Daw Khin Kyi)를 기억하여 설립했습니다. 미얀마 국민의 건강, 교육,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과 함께, 특히 저개발지역에 집중하여 활동합니다.

6

네팔의 '팬네팔' www.facebook.com/ForestersAllianceForNTFPsNepalFanNepal

팬네팔(Forester's Alliance for NTFPs)은 2009년 임산물, 환경,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등의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환경재단과는 2013년 네팔의 루쿰(Rukum), 푸가(Peugha), 루가(Rugha) 지역에 태양광 전등 지원을 함께 했습니다.

7

우리나라의 '희망의 언덕' <http://cafe.naver.com/hillofhope.cafe>

한반도(인권·민주화·통일) 화해센터에서 시행하는 제 3세계 어린이 지원 프로젝트인 희망의 언덕은 네팔 어린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아동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8

네팔 긴급지원을 함께한 '아름다운커피' <http://www.beautifulcoffee.org/v2011/main.php>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무역을 공정무역(Fair Trade)을 통해 빈곤 해결의 수단으로 바꾸려는 곳입니다. 아름다운커피 네팔 센터와 함께 네팔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신두팔촉(Sindhupalchok)의 커피협동조합 농민들에게 태양광전등을 지원했습니다.

9

네팔 긴급지원을 함께한 '이매진피스', '카르마 파운데이션' <http://www.imaginepeace.or.kr/>

이매진피스는 평화여행, 평화행동, 평화교육, 평화놀이터를 열어가며 사람과 관계 속에서 평화의 그물망을 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2006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평화 교육과 분쟁지역에 평화도서관 만들기, 평화를 배우는 여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팔 지진 피해 이후 현지 기반단체인 카르마 파운데이션과 태양광 전등을 지원했습니다.

10

인도네시아의 'ECOTON'

ECOTON(Ecological Observation and Wetlands Conservation)는 2000년에 설립되어 습지생태계에서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증진을 위해 환경정보, 지역사회 교육 및 참여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1

인도네시아의 'WALHI' <http://www.foei.org/member-groups/asia-pacific/indonesia>

WALHI는 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의 줄임말로 '환경을 위한 인도네시아 포럼'이라는 의미의 가장 크고 오래된 인도네시아의 환경단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구의 벗'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한국 '지구의 벗' 사무국인 환경운동연합의 협력으로 자바섬과 방카섬에 태양광전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12

인도의 'CHANARD' <http://www.chanardindia.org/greenasia.php>

CHANARD(Center for Human and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는 1996년 설립되어 타밀나두 지역에서 농촌 빈민과 억압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회, 경제, 정치, 환경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합니다.

13

인도의 'NAVDANYA' <http://www.navdaya.org>

'9개의 종자(씨앗)', '새로운 선물'이라는 의미의 NAVDANYA는 생물 및 문화 다양성 보존, 유기농업, 농부들의 권리, 종자(씨앗)보존공법에 관해 활동하는 여성중심의 NGO 단체입니다. 씨앗 보존은 생물종 다양성, 씨앗 이용에 대한 지식, 문화, 지속가능성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인도 전역에 100개 이상의 종자 은행 설립을 돕고 있습니다.

CASE 1:

네팔

인구 | 약 2,700만 명

1일 2\$ 이하 생활인구 | 56%

전기 보급률 | 76%

농촌 전기 보급률 |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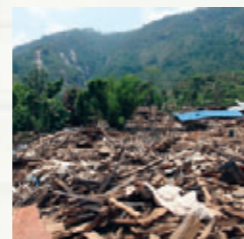
네팔은 2012년, 환경재단의 태양광 전등 지원을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두 번의 강진을 겪은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네팔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선물합니다.

태양 빛을 희망 삼아 재건을 꿈꾸는 네팔 사람들

네팔에서는 약 200만 가정이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기본 열너댓 시간씩 전국적으로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인 카트만두조차도 전기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2년 환경재단이 처음 찾은 곳은 네팔의 루쿰(Rukum) 마을로, 전형적인 내륙 산악지대로 겨울철 기온은 평균 영하 20℃, 네팔에서도 북부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태양광 전등 전달이 쉽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루쿰 지역에서는 즈하로(Jharro)라는 소나무를 태워 밤에 요리를 하는데, 송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실내는 온통 연기로 가득 차고, 즈하로를 얻기 위해 숲의 나무를 캐는 산림벌채 또한 문제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태양광 전등 사용으로 지역의 환경도, 건강도, 밤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5년에는 지진으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신두팔촉(Sindhupalchok) 커피협동조합 농가와 가티(Gati), 굽탕(Ghumthang) 지역에 협력단체들과 태양광 전등을 지원함으로써 네팔 주민들의 삶의 재건을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CASE 2:

필리핀

인구 | 약 9,200만 명

1일 2\$ 이하 생활인구 | 41.7%

전기 보급률 | 70%

농촌의 전기 보급률 | 52%



태풍으로 망가진 마을의 송전시설이 재해 1년 후에도 복구되지 않아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밧수드 마을의 주민들에게 태양광전등 200개를 지원했습니다.

태풍 하이옌 후에도 희망을 품고 재기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

두 번의 태풍이 할린 뒤, 거의 1년 만에 빛을 만나게 된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입니다. 이제 가족들은 해가 진 후에도 집 안에서 오순도순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태풍 하이옌으로 약 1,300만 명이 피해를 입은 후(필리핀 사회복지부 DSWD) 재난복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제 구호 물자 보급 및 인력 지원이 일부 섬 위주로 진행되어 복구가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위한 태양광 전등 및 라디오 지원이 시급합니다.

환경재단은 이들이 빛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마을재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단체 이매진피스 그리고 현지단체인 ECCI와 협력하여 밧수드 마을을 비롯한 필리핀의 피해가정에 태양광 전등 200개를 지원했습니다.

태풍 후 빛을 잃은 채로 생활했던 필리핀 밧수드 마을의 주민들이 태양광 전등을 전달받고 밤에도 필요한 빛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SE 3:
인도,
타밀나두 주

인구 | 약 1억2,000만 명

1일 2\$ 이하 생활인구 | 59.2%

전기 보급률 | 75%

농촌 전기 보급률 | 67%



환경재단은 2013년 폭우로 인한 인도 우타르칸드 재난지역에 100개의 태양광 전등을, 2013년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의 코다이카날 마을에 2년 동안 600개의 태양광 전등을 지원했습니다.

인구 대비 전력량은 절대 부족하지만 웃음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인도 타밀나두

총인구 12억7,000만 명(2008년) 대비 전기 미보급 인구가 4억1,000만 명 이상으로 아시아 최대인 인도. 2012년 기준 인도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 에너지 소비의 4.5%(세계 4위, 5억6,300만 TOE)를 차지하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2010년에서 2040년까지 연평균 2.7%로 세계 최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624 kWh에 불과하며,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04년 쓰나미 피해 지역인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의 전력 부족 비율은 23.5%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원 지역인 코다이카날은 외딴 산악지역으로 지리상 여건과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약 60% 가정이 전력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90%가 문맹인 지역 주민(소수 민족)은 최근 기후변화로 채집과 임업을 기반을 둔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고, 물 부족 현상 등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재단의 태양광 전등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ASE 4:
몽골,
울란바토르

인구 | 약 5,500만 명

1일 2\$ 이하 생활인구 | 41.7%

전기 보급률 | 32%

농촌 전기 보급률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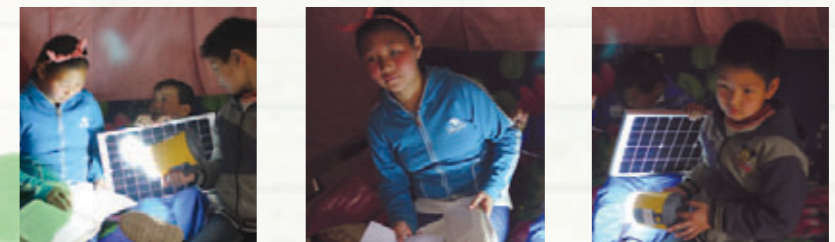


밤에 불이 없어 공부도 숙제도 못하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 하곤 했는데, 이젠 밤에도 숙제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Wandakh-Erden. 밤에 화장실 가는 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몽골, 할머니와 사는 것이 일상인 어린 소년들에게

몽골은 총 156만km²의 국토면적으로 아시아에서 6번째로 넓지만 인구는 약 290만 명에 불과하며, 넓은 국토에 흩어져 있는 지방 거주민들을 위한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위치한 성긴하이르항은 가난한 사람들이 2년이 넘게 전기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웃 가정으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한 달 평균 2만~3만 원이 들어 전기사용은 꿈도 못 꾸는 실정입니다. 할머니와 생활하는 형제와 남매는 태양광 전등을 받아들고는, TV로 만화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하며 어른스럽고 또 아이다운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젠 태양광 전등이 있어 밤에 할머니가 촛불을 켜고 밥을 안 해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소년.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나간 부모님 대신 할머니와 살고 있지만, 빨리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는 소년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CASE 5: 캄보디아



캄보디아
인구 | 약 1,400만 명
1일 2\$ 이하 생활인구 | 40.9%
전기 보급률 | 34%
농촌 전기 보급률 | 18%

CASE 6: 미얀마



미얀마
인구 | 약 5,500만 명
1일 2\$ 이하 생활인구 | 26%
전기 보급률 | 32%
농촌 전기 보급률 | 18%

CASE 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구 | 약 242만 명
1일 2\$ 이하 생활인구 | 46.5%
전기 보급률 | 76%
농촌 전기 보급률 | 59%

작은 것에 기뻐하고 환한 웃음을 짓는 캄보디아 사람들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전기 보급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한 곳인 반면,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입니다. 캄보디아의 전기 보급률은 24%로 캄보디아 가정의 대부분은 등유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등을 밝히거나 TV를 봅니다.

캄보디아에서 태양광 전등을 지원받은 가정은 캄푹 주 지방 정부에 등록된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전력 부족이 심한 캄보디아에서도 대도시가 아닌 캄푹 주,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가정의 한 달 소득은 평균 30달러 미만, 한 가구의 구성원은 평균 5인 내외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두 밝고 환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쾌하고 평화로운 캄보디아 특유의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 지원받은 태양광 전등이 가족들에게 밝은 웃음을 찾아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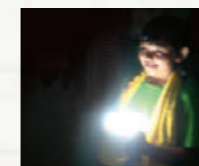
빈곤선 생활에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미얀마의 학생들



미얀마는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전기 미보급률이 87%에 달합니다. 미얀마 전력부에 의하면 총 5,500백만 인구에 공급전력은 2,500MW에 불과하며 특히 농촌 가구는 16%만이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재단은 두 차례에 걸쳐 미얀마에 방문했습니다. 태양광 전등을 전달 받은 후의 가족, 학교와 학생들의 변화는 고무적이었습니다. 닛 윈지(Hnin Wut Ye)는 태양광 전등을 사용하기 전 20등이던 성적이 3등까지 훌쩍 올랐으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태양광 전등을 지원 받은 후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는데, 그럼에도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이루지 못할 꿈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전등 지원 후에도, 받은 학생들이 더 밝은 꿈을 꿀 수 있도록, 환경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에도 미래의 꿈을 잃지 않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이들



인도네시아는 총 전력 공급량이 수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지역별로 전기 보급률 차이가 심해 자바-발리를 제외한 소외지역들의 전기 보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중심지인 자바 발리 지역은 가정용 전기 보급률이 96%를 상회하나, 칼리만탄(Kalimantan)과 북부 수마트라(Sumatra) 지역은 전력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300여 개의 태양광 전등을 전달받은 곳은 자카르타의 빈민 마을 빠사르밍구(Pasar Minggu)로,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서 소득 수준이 하위 두 번째인 도시 빈민지역입니다. 빠사르밍구 마을의 달라(11세)가 태양광 전등을 들고 미소짓고 있습니다. 곧 중학생이 되는 달라는 다른 친구들보다 키는 작지만 경찰이 되고 싶은 큰 꿈이 있습니다.

CASE 8: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세계 1위의 기후변화 취약 국가입니다. 열대 몬순 기후로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며 사이클론이나 태풍, 홍수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세계 1위의 인구밀도국이지만 전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43%뿐입니다. 이제 환경재단이 전달한 태양광 전등이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에 희망의 빛이 되어 집집마다 깃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구 | 약 1억6,000만 명 1일 2\$ 이하 생활인구 | 76.5%
 전기 보급률 | 60% 농촌 전기 보급률 | 48%

**어둠던 마을이
솔라스쿨로,
에코빌리지로**

모두가 함께 만든 햇빛 학교,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이야기

세계 1위 인구밀도국이나 전체인구의 43%만이 전력혜택을 받는 방글라데시. 환경재단은 태양광 전등 지원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면서 방글라데시에 효율적으로 태양광 전등을 전달하고, 나아가 자립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기후변화의 피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방글라데시 정부는 대외원조 자금을 기반으로 태양광패널을 점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고, 비정부기구(NGO)가 주축이 되어 송전망 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가정용 태양광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재단은 방글라데시의 환경 단체인 BEDS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의 정보를 얻으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 설립된 BEDS는 방글라데시 남단 순다르반 지역에서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등의 환경이슈에 대응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지원 지역인 순다르반은 전세계 맹그로브 숲 중 가장 큰 규모인 14만ha로 1997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260여 종의 조류, 뱅골호랑이, 악어, 돌고래 등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지이나 최근 이 지역의 화력발전소 건립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호가 시급합니다. 방글라데시 쿨나 주에 위치한 바니산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맹그로브 숲인 순다르반과 경계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어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은 2012년부터 계속된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에서 더 나아가 2015년부터 전기 미보급 지역에 고용량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태양광 에너지 활용, 환경교육, 주민소득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개발 통합모델인 솔라스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순다르반 지역에 있는 케주리아 비나파니 공립 초등학교가 그 시작으로, 첫 번째 솔라스쿨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태양광 고용량 패널을 설치해 충전된 태양광 전등을 학생들에게 배분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 전력으로 마을 환경교육 및 소득창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솔라스쿨을 넘어 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살려 교육, 식수, 에코투어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에코빌리지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후원

태양보다 밝은 미소, 태양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나눔을 함께해 주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누군가의 태양이 되는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만큼, 맺음 만큼 중요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계속해서 곳곳에 밝은 빛이 뻗어 갈 수 있도록, 계속되는 나눔을 지속하기 위해서,
환경재단은 오늘도 아시아의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 길에 동행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지속할 수 있는 힘

‘함께’여서 가능했던 태양광 전등 지원 프로젝트

환경재단의 일반 개의 태양광 전등 지원 프로젝트는 결코 혼자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전문가와 환경 전문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가정에서 개인으로 소중한 나눔을 함께 해주신 수많은 그린피플, 그리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내의 환경 리더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하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몽골과 인도네시아 지원에는 롯데백화점이 힘을 보탰고, 하나은행, 삼양사, 삼성토탈, URG 등의 기업 임직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이 된 것은 태양광 전등 지원을 위해 후원해준 그린피플의 응원이었습니다. 영화상영회나 에너지교육 체험행사에 참여한 그린피플은 전기 없는 아시아의 마을에 건강한 에너지 태양광을 보내야만 하는 이유를 귀담아들어주시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입소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시아의 1만 가정의 어린이들은 태양광 전등 하나로 좀 더 행복해지고,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태양 같은 나눔과 참여 덕분입니다.

함께해주신 분들

- 홍보대사** 박성호 개그맨 | 박중훈 배우 | 지진희 배우 | 이효재 한복디자이너 | 프랭키와 친구들 애니메이션
- 로고 후원** 양지윤 디자이너
- 촬영** 복진오 | 이관석 | 이규호
- 프로젝트 담당자** 강경아 | 강수정 | 김가영 | 박문진 | 박은정 | 박태인 | 윤다정 | 임수연 | 임지은

그린피플

그리고 함께해주신 많은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

-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롯데백화점 | KOICA | 하나은행 | 삼성중공업
- 삼성토탈 | 삼성화재 | 레오버넷 | 삼양사 | 롯데칠성 | URG
- 한국가스공사 | 한솔교육 | 서울연구원 | 더바디샵
- 모뉴엘 | 태원전기산업 | 한화에너지
- 해피빈 | 애플트리 | 굿펀딩 | 캐시슬라이드 | SBS나도펀딩

협력 업체

- 이안기술
- DK라이텍
- 이지콘로지스틱스
- 광주수출포장

감사의 말

〈일만 개의 태양을 나누다 캠페인〉 〈고맙습니다, 아시아의 빛〉 등의 릴레이 캠페인, 태양광 전등 홍보대사와 기업 후원, 그리고 그린피플의 도움과 참여로 따뜻한 나눔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태양이 되는 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환경재단은 [아시아 태양광 전등 지원 프로젝트]와 더불어 내일이 있는 아시아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실천합니다.
환경재단의 프로젝트는 정기후원, 일시후원, 희망 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곳곳에 밝은 빛이 뻗어갈 수 있도록,

지속되는 나눔을 함께하는 방법

후원 안내

후원문의 | 02-2011-4321

대표전화 | 02-2011-4300

전자메일 | greenpeople@greenfund.org

웹사이트 | <http://greenfund.org>

후원계좌 | 기업은행 02-2011-4300

〈어른들을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어른을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른 쪽 표지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환경 창의 동화,
〈친구야, 햇빛학교 가자!〉가 시작됩니다.